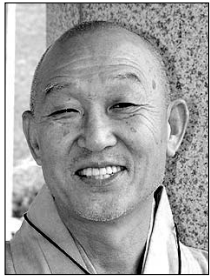


잡설 속에 송곳이... 종림 스님의 뉘드리



종림 스님의 첫 산문집 <망량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종림 스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약간 어눌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잡설이지 뭐'라고 흘러듯 얘기하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된다.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수장(守長)이자 해인사 도서관장을 역임한, 불교계의 유명한 독서광인 스님의 20여년 사색의 예리한 송곳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망량(蟒兩)은 이매망량의 준말로 산과 물, 나무와 돌 따위의 정령 도깨비들을 말한다. 이 책의 글들이 떠도는 도깨비들의 웅얼거림일 뿐이라는 뜻에서 붙인 제목이다."

책의 후기로 쓴 글에서 스님은 자신의 글을 '잡설'이나 '뉘드리'로 치부하려 한다. "대개가 문체 제기로 그린 어설픈 글"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 구경자로서 내가 지나온 흔적일 뿐"이라는 변명 역시 글에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들을 숨겨려는 의도로 읽힌다.

책을 펼쳐보자. 첫 번째 묶음의 '유포피아 꿈꾸기' '이데올로기라는 환상' '초탈의 이상' '도피의 매커니즘'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향'과 그 한계를 보여준다. 유포피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이상향이 추구하는 바와 그 한계를 짚어본다. 더불어 스님이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도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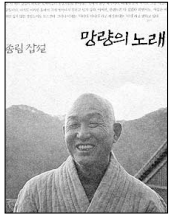
"나는 나 같은, 고뇌하는 인간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영터리 같은 고통과 고뇌를 내 선에서 끝낼기를 바랐을 뿐이다."

두 번째 묶음은 지은이 자신이 삶의 탈출구로 삼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선(禪)적인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자답(自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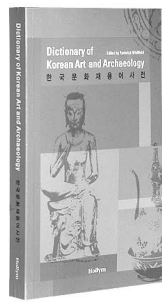
"선적인 방법은 객관화하는 일체의 대상이나 관념을 부정함으로써 대상의 우상화나 관념적인 내용의 절대화가 낡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범신론적인 실재론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화려한 수식이나 꾸밈을 배제한, 담백하고도 직설적인 문체가 우리 사회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수령 기자**

망량의 노래
종림 스님 지음
호미 | 1만원



문화재 용어 한글과 영어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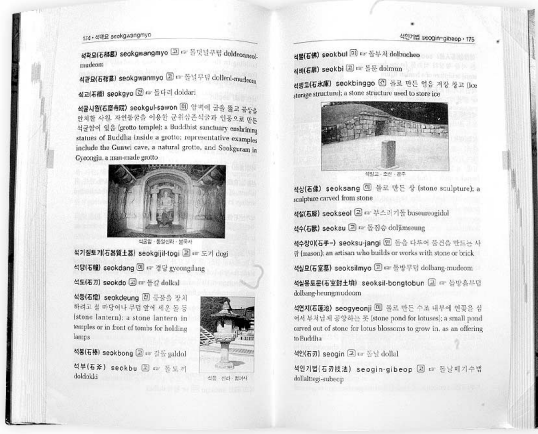


한국문화재용어사전 김광연 외 지음 | 1만8천원

'건칠'이 무슨 뜻이지? 반가사유상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까?

누구나 한두 번쯤 사찰이나 박물관의 문화재 안내판을 둘러보며 들었을 법한 의문이다. 최근에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내문에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문화재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은 최근 문화재 용어를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풀이한 <한국문화재용어사전>(Dictionary of Korean Art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펴낸 <한국문화재용어사전>은 우리 문화재 용어를 한글과 영어로 쉽게 풀이한 책이다.

된 풍부한 사진도 이해를 돕는다.

한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획에서 출간까지 3년이 소요됐고 국내외 전문가 17명이 집필과 감수·자문을 맡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회화)과 김광연 교수(인쇄), 민숙학(건축) 이청규 교수(영남대, 고고학) 윤용이 교수(명지대, 도자사) 이강근 교수(경주대, 건축학) 조은정 교수(한남대, 조각) 공예)가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를 맡아 집필했다. 총괄 감수와 자문은 영국 런던대 도야·아프리카대학 로데릭 윌트필드(Roderick Whitfield) 교수가 했다.

대표집필을 맡은 김광연 교수는 "문화는 국제 사회에서 교류의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인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문화재와 고미술 용어를 종합하여 영어로 엮는 최초의 시도"라고 출판 의의를 밝히고 있다.

책을 펴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재단은 앞으로 사찰과 불상, 서원, 전통회화 등의 시리즈를 발행해 우리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국내외 전문가 17명 집필·감수·자문

고고학·미술사 관련 용어 2800여개 뽑아

한자·영문 표기에 한·영 해설까지 덧붙여

and Archaeology)을 출간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고미술 관련 용어의 영문 표기와 해설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사전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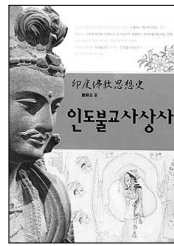
사전에는 문화재 관련 일반도서나 안내문 등에 자주 등장하는 건축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 관련 용어 2,824개가 담겨 있다. 각각의 표제어는 한자표기, 로마자 표기, 국문해설, 영문표기, 영문해설의 순으로 풀이되어 있다.

예컨대 '대좌'라는 항목을 펼쳐보면 '臺座'라는 한자와 우리말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daeja', '불상이나 보살상 등을 안치하는 받침'이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는 식이다. 또한 대좌의 영어 표현인 'pedestal'과 그것을 영어로 풀이한 'a decorated pedestal where statues of Buddha or bodhisattvas are placed'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와 관련

인도불교는 왜

힌두이즘에

녹아들었을까



인도불교사상사
정순일 지음
운주사 | 2만5천원

아비담파, 불파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밀교, 선종...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 너무도 다른 모습의 불교를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불교가 각 시대나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술한 갈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불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를 알아야 하고, 인도를 알기 위해서

는 인도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지리조건과 기후, 인종, 언어, 종교, 풍습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함을 간직하고 있는 인도가 바로 불교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정순일 교수(원광대)는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현학적인 철학 혹은 기복신앙으로 치부하거나 특정한 수행방면에 치우쳐 불교수행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는 <인도불교사상사>를 펴냈다. 그렇다면 왜 책의 제목은 '인도불교사'가 아닌 '인도불교사상사'일까? 단순한 역사적 흐름만을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태동

하고 발전하다 소멸하는 역사적 과정을 따라 형성되는 교학(敎學)의 핵심을 짚어보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말한다.

정 교수는 불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음을 중시하는 합리성과 이에 바탕을 둔 포용성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포용력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사상을 꽃피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적응력과 포용력은 불교가 힌두이즘에 녹아들 수 있는 여지가 되었고, 자신의 출발점을 상실하고 힌두의 눈에 빠져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 인도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정 교수는 주장한다.

불교의 형성과 발전,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11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고대 인도의 종교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그 사상의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불교의 흐름과 기본이념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 **깨달음에 이르는 고귀한 길 불교**(줄리앙 리에지 지음, 이종인 옮김, 동아일보사, 1만원)=동아일보사가 펴내는 '세계의 종교' 시리즈. 벨기에 루뱅-라-뇌브 대학 교수인 지은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역사, 중국과 티베트·한국·일본의 불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웃대에 배우는 삶의 지혜 88>**(하로 사치야 지음, 김항 옮김, 가람기획, 9천8백원)=사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첨단으로 발달할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여유'를 갈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나눠주실까? 일본 기소(氣所) 대학의 하로 사치야 교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주제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이웃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보시보다 소중한, 무조건 것을 지키는 것보다 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 **<상략향 이야기>**(한정설·정율수 지음, 불교신문문화원, 1만2천원)=경기도 가평군에 상략향기도원을 짓고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한정설, 정율수 법사의 생활학교 체험담. 상략향 터를 사게 된 사연과 그곳에 상략향 기도원을 지으며 겪었던 사연들이 소개되어 있다. 효봉 스님과 탄허 스님 등 선지식들과의 인연담도 담겨 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용서 | 달라리라마 | 오래된미래 |
| 2 | 오체투지 | 한 경 해 | 반디미디어 |
| 3 | 禪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 여 시 아 문 |
| 4 | 인보리행문 | 산티 데 바 | 하얀 연꽃 |
| 5 |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 김 현 준 | 쇼 터 림 |
| 6 | 홀로 사는 즐거움 | 법정 스님 | 행 터 |
| 7 | 한국의 선사들 | 김진곤 외 | 우리출판사 |
| 8 | 불 속을 걸어가는 달 | 김 진 태 | 학 고 재 |
| 9 | 왜 사는가 | 무량 스님 | 열 림 원 |
| 10 |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 소운 스님 | 도 술 |

도서 안내: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놓은 환단고기.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건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제연구소에서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방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에이판/이선일, 전호일 공자/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봉/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정봉/유영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장코)

易學, 더이상의 학문은 없다

2가지 새 개념의 약화 -완결편-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물심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화신=추구하는 삶)과 심상체질(원초적인 본능=필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까지 나온다.

왕초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근 이론을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독내용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래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제재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인신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동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 ▶ 생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 ▶ 꿈 해몽 비법 ▶ 때로 보는 궁합
-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 날짜로 손(상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동 316-22 전 호 (02)365-8172 전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영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